

## 월 양 계

8월호

- ◎ 장마기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혹서기에 접어들었다. 한 여름에는 혹서에 의한 열사병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하루중 계사 내의 온도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시간대는 오후 3~4시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에 폐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으로 쿨링패드 사용도 온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크며 안개분무 시스템이 설치된 농장에서는 이 때에 뿔과 함께 작동해줄 경우 계사 내부를 시원하게 해 줄 수가 있다. 혹서중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비가 개인 후에는 소독을 철저히 하여 질병 예방에 힘쓰고, 영양제 등을 적절히 투여해 스트레스를 예방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 최근 양계업 경기가 장기적인 불황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육계의 경우 복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육계시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병아리 가격도 생산비 이하인 100원대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산란계의 경우는 여름 비수기철을 맞이하여 유통에 어려움이 겹치면서 특란 기준 농가 수취가격이 60원대 이하를 기록하면서 역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 적정수수 이상 늘어난 닭 숫자를 어떻게 조절해가야 할 것인가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 ◎ 산란계 자조금사업이 불씨를 당기고 있다. 의무자조금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금년부터는 종계업계에서 임의자조금 사업 동참을 약속하면서 지난해 보다 큰 규모로 자조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거출금액은 3억원(생산자, 종계업계 각각 1억5천만원)으로 정부보조금을 합해 총 6억원의 자금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업계의 불황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농가 스스로의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 국내에서는 이미 지난 6월 18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였지만 외국에서는 여전히 고병원성시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중국에서는 지속적인 발생과 아울러 변이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지난 10일에는 독일 동부지역의 한 거위농장에서 고병원성시가 발생되면서 가금관련 수입이 전면 중지되기도 하였다. 조만간 국내 시발생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 나오고, 시방역실시요령과 SOP가 발표되었지만 차단방역을 통한 기본적인 방역활동을 생활화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